# Variations on a Rococo Theme for cello, Op. 33

- □□

정보

개요
곡명: Variations on a Rococo Theme, Op. 33, TH 57 / ČW 59
작곡가: Pyotr Ilyich Tchaikovsky (1840–1893)
장르: 독주 첼로와 관현악을 위한 콘체르탄테 주제와 변주곡
작곡 시기: 1876년 12월 ~1877년 1월 (구력)
초연: 1877년 11월 18일 (구력) / 11월 30일 (신력), 모스크바 러시아 음악협회 제 3회 심포니 콘서트, Wilhelm Fitzenhagen 독주, Nikolay Rubinstein 지휘
헌정: Wilhelm Fitzenhagen
판본 범위: Tchaikovsky의 원안 (주제와 8변주)과 Fitzenhagen이 편집해 출판한 판본 (주제와 7변주)을 함께 다룬다.

IMSLP: Variations on a Rococo Theme, Op.33 (Tchaikovsky, Pyotr)

Wikipedia: Variations on a Rococo Theme

Variations on a Rococo Theme 은 Pyotr Ilyich Tchaikovsky가 1876년 말부터 1877년 초까지 쓴 독주
첼로와 관현악을 위한 연속 변주곡이다 . Tchaikovsky가 남긴 원안은 도입과 주제 뒤에 여덟 변주가 이어지며, 초연자이자 헌정자인 Wilhelm Fitzenhagen의 편집을 거친 출판판은 한 변주를 삭제하고 순서를 바꾸어 일곱 변주로 정리했다. ‘Rococo’는 18세기 작품에서 빌린 주제가 아니라 Tchaikovsky가 고전시대의 문체를 본떠 만든 독창적 선율을 가리킨다.

출판 정보와 판본

Tchaikovsky는 먼저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형태로 작품을 구상한 뒤 관현악 총보를 완성했다. 모스크바
음악원의 동료 교수이자 첼리스트였던 Fitzenhagen에게 첼로 파트를 점검받으면서 자필 원고에 연필 수정과 덧붙인 부분이 생겼고, 변주의 순서와 연결부도 바뀌었다. 현존 총보 대부분은 Tchaikovsky의 필체지만, 제 1 변주 여섯째 마디부터 제 4변주 끝까지와 제 5변주 일곱째 마디부터 작품 끝까지의 첼로 파트는 Fitzenhagen이 썼다.

러시아 국립 음악박물관 (모스크바)에는 Tchaikovsky의 관현악 자필 총보 (기금 88, 제 96호), 작곡가가 만든 첼로 ·피아노 자필 (기금 88, 제 342호), Fitzenhagen의 첼로 파트가 들어간 사본 (기금 88, 제 97호)이 보존되어 있다. 이 자료군은 작곡가의 원안과 연주자의 수정이 한 작업 과정 안에서 겹쳐 있음을 보여 주므로, 1889년에 출판된 판본을 단순한 외부 편곡으로만 설명하기 어렵게 한다.

Fitzenhagen판 첼로 ·피아노 악보는 Pyotr Jurgenson이 1878년 11월에, 관현악 총보와 파트는 1889년 11 월에 출판했다. 1889년 총보는 45쪽, 관현악 파트는 별도 판번호로 발행되었으며 , 이 판본이 20세기 전반까지 공연의 표준으로 유통되었다 . Tchaikovsky Research와 Sergei Istomin의 판본사 연구는 Fitzenhagen의

개입을 자필, 서신, 초판을 함께 대조하는 편집 ·출판 과정으로 설명한다.

Tchaikovsky의 원안은 20세기 중반에 복원되었다 . Aleksandr Stogorsky가 편집한 1954년 Muzgiz판이 초기 복원 계열을 이루고, Viktor Kubatsky가 편집한 Tchaikovsky 전집판이 1956년에 총보와 첼로 · 피아노판으로 출판되었다 . Edition Peters의 2009년 원안판과 Thomas Kohlhase 편집의 2007~2010년 관현악판처럼 후대 출판도 별도의 편집 계보를 가지므로, 프로그램이나 음반의 original version, Tchaikovsky version, Fitzenhagen version 표기로 텍스트를 구별할 수 있다.

초연과 초기 연주

첫 관현악 연주는 1877년 11월 18일 (구력) 모스크바 러시아 음악협회 제 3회 심포니 콘서트에서 열렸다. Fitzenhagen이 첼로를 연주했고 Nikolay Rubinstein이 지휘했다. 당시 해외에 있던 Tchaikovsky는 이
공연을 직접 듣지 못했으며, Nadezhda von Meck은 공연 당일 편지에서 Fitzenhagen이 그의 변주곡을
연주하고 있다고 알렸다.

러시아 밖 첫 연주는 1879년 5월 27일 (구력) / 6월 8일 (신력) Wiesbaden Music Festival에서 Fitzenhagen 이 맡았다. Fitzenhagen은 같은 해 6월의 편지에서 D단조 Andante 뒤에 청중의 박수가 터졌고 자신이 세 번 불려 나왔다고 Tchaikovsky에게 보고했다. 이 기록은 현재의 Fitzenhagen판에서 D단조 Andante가 여섯 번째 변주에 놓인다는 사실과 함께 읽을 때, 특정 느린 변주가 초기 공연의 수용에서 두드러졌음을 보여 준다.

Tchaikovsky의 원안이 공연된 첫 사례는 1941년 4월 24일 모스크바 연주로 기록된다. Danyl Shafran이 첼로를 맡고 Aleksandr Melik-Pashayev가 지휘했으며 , 이후 Sergey Shirinsky도 원안판을 연주했다.
따라서 오늘날 같은 작품번호로 연주되는 두 텍스트는 작곡 시기의 순서와 19세기 출판판의 순서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소요 시간

두 판본 모두 반복과 카덴차 처리에 따라 대략 18~22분이 걸리며, 작품 자료와 공연 데이터베이스는 보통 약 20분으로 안내한다. Fitzenhagen판의 추가 반복, 원안의 여덟 번째 변주, 독주 카덴차의 선택이 실제 시간에 영향을 준다. 녹음 시간은 판본 표기와 함께 해석할 때 두 텍스트의 빠르기 차이를 설명하는 자료가 된다.

편성

독주 첼로와 다음의 소편성 관현악으로 구성된다.

목관: 플루트 2, 오보에 2, A조 클라리넷 2, 바순 2
금관: F조 호른 2
현악: 제 1바이올린, 제 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트럼펫, 트롬본, 튜바, 팀파니와 일반 타악기는 기본 편성에 들어가지 않는다. 네 종류의 목관을 두 대씩 쓰고 호른 두 대와 현악을 결합한 배치는 18세기 후반 관현악을 연상시키는 음향적 틀을 제공하며, 독주 첼로가 관현악 총주에 묻히지 않도록 악기 수를 제한한다. 다른 악기를 보강한 공연은 이 원곡 편성과 구별해 기록된다

.

## 원안의 구조

Tchaikovsky의 원안은 도입과 주제에 이어 여덟 변주와 코다가 이어지는 연속 구조다 . Tchaikovsky Research가 제시한 악보 표기와 마디 수는 다음과 같다 . 마디 수는 해당 목록의 기준이며 , 반복과 카덴차를 포함하는 후대 판본의 실제 연주 길이와는 별개다 .

| 순서 | 악보 표기 | 마디 수 | 구조에서의 위치 |
|---|---|---|---|
| 도입 · 주제 | `Moderato assai quasi Andante – Moderato semplice` | 45 | A장조의 독창적 고전풍 주제를 제시한다 . |
| 변주 I | `Tempo della Thema` | 24 | 주제의 윤곽을 첫 번째로 변형한다 . |
| 변주 II | `Tempo della Thema` | 37 | 같은 표기 안에서 더 촘촘한 독주 음형을 전개한다 . |
| 변주 III | `Andante` | 34 | 원안에서 명시적으로 D단조를 쓰는 느린 변주다 . |
| 변주 IV | `Allegro vivo` | 46 | 빠른 기교와 추진력을 앞세운다 . |
| 변주 V | `Andante grazioso` | 58 | 부드러운 속도와 장식적 문구를 배치한다 . |
| 변주 VI | `Allegro moderato` | 46 | 중간 속도의 운동성과 독주 장식을 결합한다 . |
| 변주 VII | `Andante sostenuto` | 70 | 후반부의 긴 호흡을 담당하는 서정적 변주다 . |
| 변주 VIII와 코다 | `Allegro moderato con anima` | 67 | 마지막 변주가 코다와 함께 원안의 결말을 이룬다 . |

원안에는 서로 다른 성격의 느린 변주가 둘 있다 . D단조 `Andante`는 세 번째에 놓이고 , `Andante sostenuto`는 일곱 번째에 놓인다 . 두 구간을 하나의 느린 악장으로 합치면 원안이 밝은 A장조 주제에서 단조 대비를 거쳐 후반의 긴 호흡과 마지막 추진력으로 이동하는 배열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

## Fitzenhagen판의 재배열

Fitzenhagen은 원안의 여덟 번째 변주를 삭제하고 나머지 재료를 다시 배치했다 . 그는 원안의 일곱 번째 변주를 세 번째로 옮겼고 , D단조 `Andante`를 여섯 번째로 미뤘다 . 원안의 네 번째 변주 `Allegro vivo`에서 가져온 재료와 코다를 결말에 결합했으며 , 첼로 파트 · 연결부 · 카덴차 · 반복 표기도 손질했다 .

| **Fitzenhagen**판 순서 | 악보 표기 | 원안과의 대응 |
|---|---|---|
| 도입 · 주제 | `Moderato assai quasi Andante – Moderato semplice` | 원안의 주제 . 반복과 연결 표기가 다르다 . |

| Fitzenhagen판 순서 | 악보 표기 | 원안과의 대응 |
|---|---|---|
| 변주 I | `Tempo della Thema` | 원안 변주 I |
| 변주 II | `Tempo della Thema` | 원안 변주 II의 개정형 |
| 변주 III | `Andante sostenuto` | 원안 변주 VII를 앞으로 이동 |
| 변주 IV | `Andante grazioso` | 원안 변주 V |
| 변주 V | `Allegro moderato` | 원안 변주 VI의 개정형 |
| 변주 VI | `Andante` | 원안 변주 III(D단조 )를 뒤로 이동 |
| 변주 VII와 코다 | `Allegro vivo` | 원안 변주 IV의 재료와 결말부를 결합 |

이 배열에서는 긴 `Andante sostenuto`가 작품의 앞쪽에서 서정적 중심을 이루고, D단조 `Andante`가 결말에 가까운 위치에서 다시 색채를 바꾼다. 원안에서는 마지막 `Allegro moderato con anima`가 독립된 여덟 번째 변주로 남지만, Fitzenhagen판에서는 `Allegro vivo`가 일곱 번째 변주와 코다의 종결 표지가 된다. 두 판본의 번호와 템포 표기는 각각의 배열에 맞추어 읽어야 한다.

## 연주와 녹음의 판본 단서

초연자 Fitzenhagen은 작곡가의 첼로 파트를 실제 연주에 맞추어 손질하고, 그 수정이 반영된 악보를 출판하는 역할까지 맡았다. 1878년 Jurgenson의 첼로·피아노판과 1889년 관현악 총보가 이 경로를 고정했기 때문에, 20세기 전반의 첼리스트들은 대부분 Fitzenhagen판을 연주했다. 1941년 Shafran의 원안 초연과 1954·1956년 복원판의 출판은 이와 다른 텍스트를 다시 무대에 올릴 수 있게 한 전환점이었다.

녹음 목록에서는 Mstislav Rostropovich가 Seiji Ozawa와 Boston Symphony Orchestra를 지휘해 1960년 9월 런던 Wembley Brent Town Hall에서 녹음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Eloquence Classics의 카탈로그는 연주자·지휘자·단체와 녹음 장소 및 월을 확인해 주며, 재발매에 따라 판본명 표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함께 보여 준다. 이 사례를 Fitzenhagen판 또는 원안판의 연주로 분류하려면 카탈로그 정보와 실제 총보·해설지에 적힌 판본 표기를 따로 대조할 필요가 있다.

## 제목과 양식

Edition Peters와 Boston Symphony Orchestra의 작품 해설은 `Rococo`가 선율의 역사적 출처가 아니라 양식적 상상을 뜻한다고 설명한다. Tchaikovsky는 A장조의 대칭적인 주제, 장식적 음형, 트럼펫과 타악기를 덜어 낸 관현악을 통해 18세기적 문체를 새로 만들었고, 높은 음역과 긴 호흡의 첼로 선율로 자신의 낭만주의적 악기 쓰기를 결합했다. `Rococo`는 실제 로코코 작품의 인용이 아니라, 고전풍 주제와 첼로를 위한 콘체르탄테 형식을 함께 설계한 결과를 가리킨다.

## 주요 자료

- Tchaikovsky Research: `Variations on a Rococo Theme`

- Music & Practice: The history of Tchaikovsky's *Variations on a Rococo theme* and the collaboration with Fitzenhagen
- Boston Symphony Orchestra: Tchaikovsky, `Variations on a Rococo Theme`
- Edition Peters: Tchaikovsky, `Variations on a Rococo Theme`, Op. 33
- Hyperion: Tchaikovsky, `Variations on a Rococo Theme`
- Eloquence Classics: Rostropovich/Ozawa/Boston Symphony Orchestra catalog